

<2021년 10월 27일 수요일>

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여라

[시대 성경]

하나님과 성령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켜라.
안 지키면 그 시간에 문제가 일어난다.

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.

항상 생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므로
천사들을 보내어 많은 생명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니,

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생명은 귀하니, 나 여호와가 직접 살펴야 된다.

너희가 내게 생명을 부탁하는 일이 가장 큰 부탁이니라.”

하셨습니다.

[마태복음 16장 24~26절]

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
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

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
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

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
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

<서론>

- 하나님과 성령님은 <주일>에 ‘핵심적인 말씀’을 해 주시고,
‘그 말씀의 방향’으로 한 주간 말씀해 주십니다.

<매일 새벽>마다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‘잠언’으로 주시고,
<수요일>에는 주일에 이어 ‘후편 말씀’을 해 주십니다.

- 말씀은 <받는 자>가 ‘정확하게 받기’,
<전하는 자>가 ‘정확하게 전하기’,
<듣는 자>가 ‘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듣기’입니다.

이 <세 가지>가 모두 일체 되어야 됩니다.

그리고 그 터전 위에 ‘정확하게 실천하기’입니다.

그래야 <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역사>, <사랑의 역사>가
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어, 차원 높여 살아가게 됩니다.

-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기>가
얼~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,
‘홀로 집 한 채를 짓는 것’ 만큼이나 어렵습니다.

어떤 말씀은 ‘천 년 만’에 풀리기도 하고,

‘하나님이 2000년 만에 풀어 주시는 말씀’도 있습니다.

- <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시대 구원자>라도
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고, 몸부림치고, 갖은 고통을 겪어가면서

끝까지 해야, ‘생명의 말씀’을 받습니다.

- <금주 말씀>은 선생님이 ‘죽음’을 체험해 가면서,
‘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행하면서 받아 주신 말씀’입니다.

<전능자의 말씀>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,
‘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’으로
‘죽음’을 들랑날랑하면서 받아 주셨습니다.

- <생명을 살리는 말씀>이기에 ‘생명’을 내걸고 받아 주셨습니다.

그러니 <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>도 ‘자신의 생명’을 내걸고,
이 말씀으로 ‘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신과 심정으로’ 전해야 됩니다.

- <말씀을 받아 주는 자의 심정>을 알고,
‘진지하게’, ‘똑똑하게’, ‘표정’과 ‘표현’을 잘해서 전해주시기입니다.
‘연습’을 많이 하고 전해줘야 됩니다.

- <국가대표 운동선수>도
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고 난 후 국가를 위해 대표로 됩니다.
모두 이 같은 심정으로 ‘말씀’을 준비하고 전해야 됩니다.

- 주일에도 <선생님>은 말씀을 목숨 걸고 준비해서 받아 주셨고,
<조은 목사>도 목숨 걸고 준비해서 전해 주셨습니다.

그로 인해 여러분들이
그만큼 감동받고, 충격받고, 깨닫게 된 것입니다.

- 오늘도 하나님과 성령님은

〈시대 보낸 자〉를 통해 ‘생명의 말씀’을 주셨습니다.

이제는

〈말씀을 전하는 자의 노력과 수고와 몸부림〉을 따라 역사하시며,
‘감동’을 주시고, ‘능력과 세력이 있는 말씀’이 되게 해 주십니다.

〈말씀을 듣는 자들〉도

‘시대 사명자가 어떻게 받아 주신 말씀인지’ 더욱 깨달아야 되고,
말씀을 통해 ‘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’을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.

- 〈하나님이 주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〉은
‘길’이요, ‘진리’요, ‘생명’입니다.

〈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〉을 ‘심령’을 쏘아서,
‘마음과 뜻과 목숨’을 다해 깨달아야 됩니다.

그렇지 않으면 〈자기 생명〉도 뺏기고,
〈자기 인생길〉도 뺏기고, 〈축복〉도 뺏기게 됩니다.

- 〈하나님〉은 ‘말씀’을 통해 충분히 깨닫게 해 주신 후에는
〈본인〉이 ‘실천하기만’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.

- 〈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면〉,
‘어쩔 수 없구나.’ 하고 끝내 버리기도 하시고,

쇼크를 주고, 고통을 주고, 괴롭게 해서

다시 행하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.

또는 <옆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>에 따라 행해 주기도 하십니다.
그러므로 ‘기도함으로 형제와 생명들을 살리기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사람은 무엇이든지 <근본>을 설명해서 알게 해 주고,
<그 필요성>을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.
- <월명동, 하나님의 자연성전>에는
‘나무’도 ‘돌’도 ‘각종 작품들’도 많이 있습니다.

그런데 <근본을 아는 자>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면,
가치를 모르고 보통으로 봅니다.

특히, <낙타바위>나 <뿌리걸작술>같이
‘하나님이 주신 사연 있는 나무와 돌들’을 설명해 주지 않고
그냥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

<근본을 모르고 그냥 보통으로 보는 것>과
<설명을 듣고 충격받고, 자신도 그 만물과 같은 입장임을 깨닫고
하나님께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볼 때마다 귀하게 보는 것>은
‘땅’과 ‘하늘의 차이’입니다.

- 이와 같이 <기도>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줘야,
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.

또한 <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>도
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줘야, 매일 ‘기도 시간’을 지켜 행합니다.

<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부탁하는 일>도
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줘야,
‘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기도’를 하게 됩니다.

- 이제, 여러분이 <금주 말씀의 근본과 필요성>을 더욱 깨닫도록,
‘주일말씀에 이어지는 후편 말씀’을 전해드리겠습니다.

<본론>

- 먼저 <주일말씀의 핵심>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,
이어서 <주일 아침에 선생님이 겪은 것>을 말해 주면서,
‘후편 말씀의 핵심’도 깨닫게 해 주겠습니다.

- 금주에는 크게 ‘두 가지’로 말씀했습니다.

첫째, <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>을 꼭! 지켜라.
안 지키면 그 시간에 사고가 나고, 문제가 일어난다.

둘째, <생명을 위해 기도함>으로 ‘하나님’께 부탁하여라.

왜?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만>이
‘절대적으로 생명을 책임지고 살리는 능력’이
있으시기 때문이다.

<생명을 다루는 일>은

세상의 어느 누구도, 천사도, 메시아도 못 한다.

하나님이 구원자와 같이 행하시되,

근본은 <하나님>이 ‘생명’을 다루신다.

- 특히,

<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니,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씀>은
정~말로 크고도 깊은 말씀이었습니다.

- <생명>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관리해 주고,
하나님께 ‘생명’을 간절히 부탁하여 맡겨야 됩니다.

그렇다고,

하나님께 <생명>을 맡겨 놓고 ‘나 몰라라’ 하면 안 됩니다.
늘 신경 쓰고 쳐다보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.

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‘힘’을 받고 행해 주십니다.

- <자기 애인이 하는 일>을 쳐다보기만 하면서
‘알아서 해 주겠지.’ 하는 것이 아니라,

같이 바라보고, 도와주고, 심정을 알아주면,
얼마나 좋아하며 힘을 받고 행하겠습니까.

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성령님은

<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>는 심정 타는 말씀을
선생님이 또 실제로 겪고, 깨닫게 하셨습니다.

- 선생님이 주일 아침에 <예배>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.

성령께서 <시간>을 지키라고 하셨기에,
‘1분’ 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.

다른 사람들도 ‘예배 시간’에 맞춰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, 저렇게 와서는 아무래도 ‘제시간’에 늦을 것 같아서
심정을 태우며 그들을 쳐다봤습니다.

- 이때 성령께서 감동시키며 깨닫게 하시기를,

“<교회라는 비행기>를 타고 ‘하늘나라’로 가서
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.

<하나님과 약속한 시간>에 늦으면, 못 간다.” 하셨습니다.

- 선생님은 거의 다 도착했는데,

저기 ‘뒤에 오는 사람들’이 못 탈것만 같았습니다.

그래서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빨리 오도록 기도했습니다.

왜 더 애간장이 탔냐면, 뒤에 오는 사람에게
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맡겨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.

<준비한 예물>을 못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,
정~말 애간장이 타고, 심정이 타고,
간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
‘아, 이러다 나까지 못 타겠구나.’ 하고,
심정을 태우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

그리고 <예배를 드리는 자리>에 앉았는데,
순간 귀에서 ‘비행기 엔진 소리’가 한없이 들리면서
교회가 비행기같이 느껴졌고, 곧 뜨기 직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.

이때 ‘뒤따라오던 사람도 왔나?’ 하고, 쳐다보면서 찾았습니다.
성령께 물으니, 방금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.

이때 ‘휴’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,
떨어졌던 간이 다시 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
그리고 맡겨 놓았던 **하나님께 드릴 선물**을 얻은 받았습니다.

- 선생님 홀로 가면 덜한데, <같이 갈 사람들>을 챙겨서 가야 하니,
애간장이 타고, 심정이 탔습니다.

<챙기고, 키우고, 살려야 될 생명들>과 같이 못 가면,
하나님이 왜 생명들은 안 데리고 혼자 왔냐고 하십니다.

<구원시켜 놓은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>이
‘구원자의 책임’입니다.

- 성령께서 이를 겪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,

“<하나님께 약속한 시간>을 지키기 위해
항상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행해라.

예배 시간 20분 전, 혹은 30분 전에 안전하게 도착해야,
나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갈 때
애간장이 녹지 않고, 심정이 타지 않는다.

<너>도 <섭리사의 모든 자들>도 그러하니,
내 말을 써서 전해주어라.” 하셨습니다.

- 이 말씀이 <금주 후편 말씀>입니다.

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, 뱃속 깊이 느끼고,
뇌에 채우고 잊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.

- <성령님>은 ‘우리가 사랑하는 주체, 신랑 입장’ 이 되시고,
<우리>는 ‘사랑의 대상, 신부 입장’ 이니, 꼭 같이 가야 됩니다.

그러기 위해서는

<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: 기도 시간, 예배 시간, 각종 공적 시간>
을 꼭!! 지켜야 됩니다.

- 성령님도 ‘우리에게 맡겨 놓은 것’ 이 있어서,
우리를 꼭 데리고 가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십니다.

〈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〉이 무엇일까요?

바로, **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**입니다.

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육과 영의 생명을 살려 주시고,
늘 돕고 함께해 주시고, 구원시켜 주시고, 휴거시켜 주셨으니,
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, **감사의 제물**을 꼭!! 가져가야 됩니다.

이것이 〈후편 말씀의 핵심〉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성령님은 ‘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’ 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

의사가 급한 환자를 살리는 〈골든타임〉을 놓치면, 환자는 죽는다.

〈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〉이 ‘골든타임’ 이다.

〈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〉이 ‘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’ 이다.

그러므로 ‘그 시간’ 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,

〈전능자와 약속한 시간〉을 지키기 위해서

아예 미리부터 준비했다가 여유 있게 행해라.

- 또 성령님은 ‘몇 가지 비유’ 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.

▶ <기도>는 ‘의사가 아픈 자신을 치료해 주는 시간’ 과 같다.
기도를 꼭 해야, ‘자기 병든 신앙’ 이 치료된다.

▶ <기도>는 ‘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하는 시간’ 과 같다.
기름을 넣지 않으면, ‘갈 길’ 을 못 간다.

▶ <기도>는 ‘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’ 이다.

<축복을 주는 시간>에 사명을 못 하면,
신앙도 육신도 ‘가난의 병’ 이 들어 살게 된다.

▶ <기도>는 ‘호흡’ 과 같다.

<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>은
자기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에게
‘산소 호흡기’ 를 달아주는 것같이 급하고, 중한 일이다.

▶ 그러므로 <약속한 기도 시간>을 절대로 지켜 기도해야 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선생님은 월요일 새벽에도
<약속한 기도 시간, 1시>를 지켜 기도했습니다.

제시간에 맞춰 행하니, 성령님은 ‘한마디 말씀’ 을 해 주셨습니다.

“<자기 생명>을 위해 전적으로 기도하여라.”

- 이 말씀을 듣고,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

<선생님 자신>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.

오직 <선생님의 육신의 생명>과
<혼>과 <영>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.

그랬더니,

기도하는 즉시 <힘>을 받아서 담대해졌고, 자신 있게 되었습니다.

-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, 감동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니,
<그 힘>을 받고, 즉시 ‘영’ 과 ‘혼’ 과 ‘육’ 이 새롭게 되었습니다.

이때, 더욱 깨달아졌습니다.

아~! 이래서 <생명>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!

<골든타임>에 맞춰서 기도하면, 기도해 주는 즉시!

그들이 ‘기도의 힘’ 을 받고 새롭게 되는구나! 깨달았습니다.

- 그래서 <신앙이 힘든 자들>, <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>,
<시험에 든 자들>, <주의 몸이 되어 사탄과 싸우는 자들>을 두고
한 명, 한 명 기도를 깊이 해 주었습니다.

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니 이들과 함께해 주시고,
잘못이 있으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니,
내가 회개하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,
꼭 이 생명들을 챙기고 살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

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‘힘’ 을 받았듯이,
그들도 힘을 받고 살아나라고 간절히 간구해 주었습니다.

- <골든타임>을 맞춰서 기도해 줬으니, 반드시 ‘힘’을 받고,
‘하나님과 성령님의 감동’을 받고 행할 것이 믿어졌습니다.

이와 같이 <기도>하면, 하나님도 성령님도 바로 손을 대 주시니,
‘그들의 영’도 ‘혼’도 ‘육’도 <힘>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.

- 하나님은 항상 <자기>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
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, 잘 받아 주십니다.

남을 탓하면, 기도를 잘 안 받아 주십니다.

- 선생님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깊이 기도하고 돌아와서
바로 <수요말씀>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

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, 바로 말씀을 쓰니까
이같이 <깊은 말씀>을 받고 정리해서 보내 주게 됐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성령님은 <성경 역사>를 생각나게 하시면서,
<미리 하라는 말씀>을 깨우쳐 주셨습니다.
- 하나님은 <구약역사>가 끝나기도 전에
400년 동안 ‘신약역사를 맞을 준비’를 하게 하셨습니다.

<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>은

‘메시아를 맞는 준비를 하는 기간’이었습니다.

그리고 하나님은 <신약역사>가 끝나기도 전에
400년 동안 ‘하나님의 새 역사, 성약역사’를
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.

-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,

“<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>를 놓고도, <어떤 일>을 놓고도
미리 미리 행해야, ‘제때’를 맞춘다.

<준비하는 시간>을 줬는데 그 시간을 딴 데 쓰면,
‘근본 시간’을 빼앗긴다.” 하셨습니다.

- 예수님은 <시간과 때>에 대해 말씀하시기를,

“이 패역한 세대들아, 너희는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
하나님의 때는 그렇게도 구분하지 못하느냐.” 말씀하셨습니다.

- <메시아를 기다리는 자>에게 ‘그가 오는 때’를 전해줘도 외면하니,
예수님은 참고 참다가, 심정을 쏟아 말씀하셨습니다.

<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자들>은 ‘새 시대’를 맞지 못하고,
수천 년이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‘구시대의 사람’이 됐습니다.

-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<하나님의 역사의 때>가 되어 ‘시대 사명자’를 통해 외쳐도

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,

또한 시대를 맞고 살면서도 <때>를 모르고,

<제시간을 지켜 행하는 가치>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에,

하나님과 성령님은 ‘신약 때’와 같이 ‘이 시대’에도
주를 통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.

“너희는 <계절의 때>는 알고,

<자기가 먹고, 입고, 씻는 때>는 알면서,

<목숨 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>,

<주를 맞는 때>는 왜 그렇게도 알지 못하느냐.”

- <주>가 ‘시대의 때’에 맞춰 말씀을 전하는데,
그때 깨닫지 못하고,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깨달으면,
사도바울같이 <주의 말을 못 깨달은 것>을 후회하며,
‘비통한 삶’을 살게 됩니다.

사도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
혼자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,
모두 그 심정을 깨닫기 바랍니다.

- 사도바울은 말씀하기를,
“<때>를 아껴라. ‘그 시간’을 하나님께 충분히 써라.” 했습니다.

<자기 시간>을 충분히 쓰고는,

<하나님의 시간>을 충분히 쓸 수가 없습니다.

- <시간>을 허비하면, 늘 시간에 쫓깁니다.
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쓰면, 시간이 충분하여 남아 돌아갑니다.
모두 <시간에 지혜 있는 자들>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- <기도>는 ‘일’ 과 같아서 하루 이틀 해서는 ‘표’ 가 안 납니다.
 <어떤 일>을 두고 일주일, 혹은 보름씩 일하면 ‘표’ 가 나듯이,
 <기도>도 오래 기도해야 ‘표’ 가 납니다.
- <생명을 챙길 일>이 있으면,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서
 그들의 죄도 대신 회개해 주며, 간절히 기도해야
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‘하나님의 뜻’ 대로 행하게 됩니다.
- <힘들고 어려운 생명들>, <시험에 든 생명들>,
 <오해하는 생명들>, <책임을 못 한 생명들>이 있으면,
 험뜯고 욕하지 말고,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도 말고,
 ‘자기 잘못’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.
- <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자>인데도
 기도해 주지 않아서 못 살리고 가면, 하나님께 너무 민망하고,
 할 일을 못 했으니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.
 그러므로 ‘부끄러운 구원’ 을 받게 됩니다.

- <진정한 기도>, <진정한 마음>이라야, ‘생명’을 살리게 됩니다.
- <자기 생명>같이 보면서, <자기 잘못>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해야,
<생명>도 ‘그 심정’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.
- 항상 생명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,
<생명을 잘못 다룬 것>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,
그 기도가 ‘생명을 살리는 기도’가 됩니다.
-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
<제시간, 골든타임에 기도해 주는 것>과
<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는 것>이 중합니다.
- 사람들 사이에도 <상대 심정>을 알고 이야기하면,
바로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듯이,

<하나님의 심정>을 알고 기도해야,
빨리 응답해 주시고, 빨리 실행해 주십니다.

그러므로 ‘심정을 알 때까지’ 기도해야 됩니다.
-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
이 말씀을 듣는 자 위에 충만하여,

<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지키는 일>과
<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>을 태양처럼 식지 않고,
멈추지도 않고 연속해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.